

창원시, 진해 여좌동 일대 도시재생 본격 추진

진해 원도심 활성화 차원, 여좌동 일대 도시재생 추진
군항제 관광지 메카 여좌천 중심으로 관광자원 개발

김선환 기자

승인 2018.03.22 09:51

창원
시



창원시는 진해구 여좌동 일대 지역의 자연환경과 기반자원을 활용,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and 지역주민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'블라썸여좌사업'을 적극 추진한다. 사업계획도.

는 진해구 여좌동 일대 지역의 자연환경과 기반자원을 활용,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and 지역주민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'블라썸(Blossom)여좌사업'을 적극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.

이 사업은 지난해 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'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'으로 선정됐다. 도시재생 사업인 '블라썸(Blossom)여좌사업'은 '벚꽃이 피는 여좌', '주민의 형편이 나아지고 얼굴이 펴지는 여좌'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△물리적 사업 △주민참여 프로그램 사업 △주민공모사업 컨설팅 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.

군항제 관광지의 메카인 여좌천을 중심으로 여좌천 일대 정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골목길, 청정안심골목길(CPTED셉테드 도입), 힐링로드 등을 조성한다.

또 주민참여와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학교 운영, 세대·계층간 공동체 회복과 복지사각지대 주민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, 주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수립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여좌천 일대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올해 6월 완료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용역진행하고 있다. 한편, 본격적인 사업은 용역완료 후 진행될 예정이다.

특히 올해는 지난해부터 진행해왔던 '마을학교'와 '도시재생주민협의회' 등을 통해 강화된 주민들의 역량을 바탕으로, 여좌동 관광상품 개발 및 군항제 주민참여, 주민주도형 공모사업 등의 지역 주민 직접참여와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를 목표로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김해성 창원시 도시재생과장은 "블라썸여좌사업 추진으로 여좌동 일대 핵심자원인 여좌천과 내수면생태공원, 장복산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, 올해 공모예정인 충무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진해원도심 일대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돼 진해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김선환 기자 ksh@hannamilbo.com

<저작권자 © 한남일보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

인쇄하기